강남구 삼성동

박재범 힙합 레이블 대표직 사임… 카카오엔터와 새 기획사 꾸리나

〈AOMG, 하이어뮤직레코즈〉

박재범이 속했던 아이돌 그룹 '2PM'은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한민국 6인조 보이그룹이다. 2008년 9월 데뷔 당시에는 재범(박재범의 2PM 활동명)을 비롯한 준수(이후 준케이로 예명 변경),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으로 구성된 7인조 그룹이었지만 2010년 2월 리더를 맡고 있던 재범이 영구 탈퇴한 이후 6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뷔 초부터 인기를 끌었던 '2PM'은 싱글 데뷔곡 '10점 만점에 10점'으로 2009년 각종 가요프로그램 1위, 2009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2009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노래상 수상 등으로 인기 가수로 거듭났다. 두 번째 싱글 앨범 발매와 더불어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와 노래로 무대를 장악하며 '짐승돌'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박재범은 어렸을 적부터 춤을 잘 춰 비보이로 활동했다.



래미안삼성1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2

그러다 2004년 JYP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한 시애틀 글로벌 오디션에 참여해 합격, 한국에 들어와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2PM'으로 데뷔해 '2PM'으로 여러 히트곡을 내며 유명 그룹 멤버 중 한 명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09년 보도된 사건으로 재범은 '2PM'에서 탈퇴하게 됐다. 재범이 '2PM'으로 데뷔하기 약 4년 전 미국 내 네트워킹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에 올린 글이 문제였다. 이는 그가 한국에 온지 한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에게 방명록처럼 쓴 글이었는데 이 글에는 연습생으로서의 힘든 한국생활에 대한 투정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것이 한국비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후 악화된 인터넷 여론으로 그는 사건 4일 만에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국 비하 논란은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보자가 재범이 한국을 '모국'(motherland)으로 표현하는 등 한국에 대해 좋게 표현한 내용은 빼버리고 악의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오역해 기자에게 보낸 것이다. 이후 MBC 'PD수첩'은 재범의 글이 한국 생활적응이 힘든 것에 대한 투정 정도의 글이지 한국비하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다.

2009년 '2PM'에서 탈퇴한 재범은 이후 싸이더스HQ 계약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해 10월 힙합 레이블 AOMG를 설립, 대표를 맡으며 자신만의 음악색을 구축했다.

AOMG는 힙합 대중화와 아티스트 양성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출범한 기업으로 CJ E&M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CJ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2017년에는 박재범과 차차말론이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레코즈를 설립해 대표를 맡았다.

해외에서도 진가를 인정받으며 한국 힙합계의 거목으로 성장한 박재범은 특유의 감각과 음악적 재능으로 일부 마니아층 문화로 여겨졌던 힙합의 대중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아시아 뮤지션 최초로 미국 힙합계의 수장인 제이지(Jay-z)가 설립한 유명 힙합회사 락네이션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편 최근 AOMG와 하이어뮤직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수 박재범이 아이돌 그룹 제작자로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박재범이 자신의 새 기획사 설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재범의 행보에 카카오엔터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 측은 "박재범은 가수, 프로듀서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아티스트다"며 "카카오엔터는 음악산업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재범과도 현재 다양한 형태의 사업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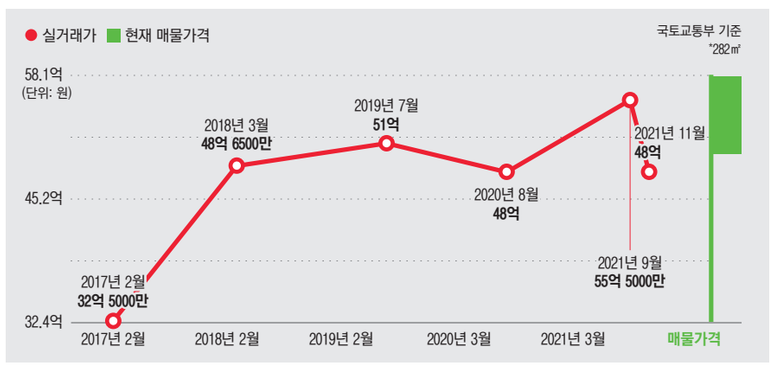
이동원 기자



박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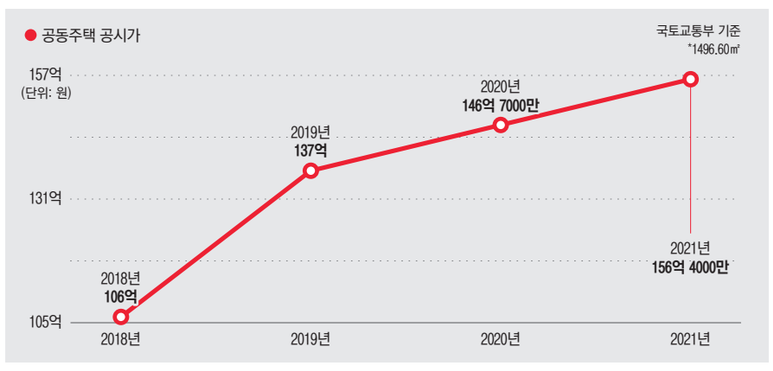
삼성동아펠바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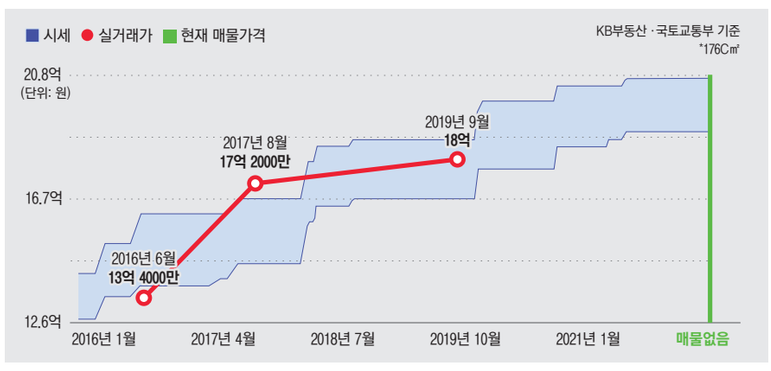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6



구오섭

현)글로리서울안과 대표원장



구오섭 글로리서울안과 대표원장은 삼수 끝에 1990년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해 안과의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 사천 서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또래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사일을 돕는 등 시골에서 살면서 지루함을 느꼈다. 이곳을 벗어나 도시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뒤 고등학교 1학년 때 홀로 진주로 떠났다. 그는 보람된 일과 경제적으로 풍족한 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여러 분야 중 안과의사가 된 구 대표원장은 환자가 느낄 두려움과 불편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라식을 받기도 했다. 구 대표원장은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한국콘택트렌즈연구회, 대한안과협회 정회원이며 글로리 서울안과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정호

현)시몬스 대표이사 사장



안정호 시몬스 대표이사 사장은 에이스침대 창업자 안유수 회장의 둘째 아들로 서던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우리나라 침대시장의 개척자 안유수 회장은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정리했다. 장남 안성호 사장에게 에이스침대를, 차남 안정호 대표에게는 또 다른 침대 기업 시몬스를 각각 물려줬다. 안정호 대표는 일주일에 세 네 번은 직접 생산라인을 살필 정도로 침대 사랑이 대단하다. 시몬스는 '기본에 충실해야 명품이 나온다'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으며 설비 확충과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시몬스는 설을 앞두고 편안한 숙면을 위한 매트리스 등을 선물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다.



박승림

전)인하대학교 병원장



박승림 전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 한림대 의과대학 부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인하대 병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인하대 의무부총장 겸 인하의료원장 겸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등을 지냈다. 줄곧 의사로 일해한 박 전 병원장은 2010년 인하대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뒤 병원 경영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영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또한 그는 의료원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당시 그는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몇 의사에게 경영세미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주고 경영자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몸담았던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지역에서 확고하게 명성을 쌓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연내 가닥

인천광역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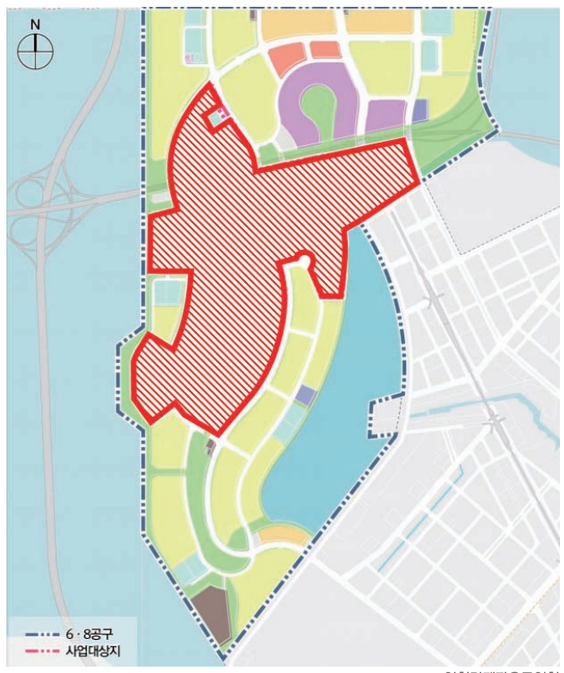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년째 방치된 R2블록의 개발 방향도 올해 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2020년 11월 중단한 송도 8공구 R2블록 15만8천㎡ 부지에 대해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2블록은 송영길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3년 12월 부채 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부지로 2019년 당시 감정가는 5200억원대였다.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R2블록은 송도에서 유일하게 토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개발에 앞서 상세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계획구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고밀도 개발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2020년 4월 이 땅의 용적률을 800%에서 600%로 낮추고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조정했다.



송도 6.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여기에 R2블록 주변 주민들은 주거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기반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 쇼핑몰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오피스텔 건립 규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마련될 개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송도 6·8공구 128만㎡ 개발계획안이 결정되면 바로 옆 R2블록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며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옮긴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연면적 2만3141㎡)와 검찰청사(연면적 1만9988㎡)를 짓고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더불어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연면적 3300㎡)도 건립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조성한 것으로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했다. 하지만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시와 뜻을 함께해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올해 3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4만6614㎡ 규모의 1공단 근린공원을 준공한다.

정도현 기자

천안시,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가칭) 신설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는 부성동 일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비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한 부성역(가칭) 신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될 부성역은 현재 공사 중인 역사 주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성성, 부대, 업성지구 등 다수의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임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

시는 국토부와의 부성역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올해 중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3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면적 4400㎡, 승강장 220m 규모에 총사업비 403억원의 선상역사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및 3차에 걸친 전문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 신설 승인을 이끌어냈다.

정도현 기자